

독일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Musikunterricht(음악수업)”의 내용체계 분석 연구

조 순 이*

이 논문은 독일(슐레스비히-홀슈타인 州)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동기는 그 모든 교과 교육과정의 이념을 실현하는 최우선적인 수단으로서 교과서와 지도서에 대한 관심이 언제든 특별하다는 데 있다. 상기 교과서와 지도서는 학습내용을 구상(構想)함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이념이 제시하는 활동영역의 구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일관된 주제를 살리면서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교과서 및 지도서와 차별된다. 이 같은 차별성은 특히 활동영역의 구분(교육과정), 영역들 간의 연계성(교과서), 한 차시 수업절차에 있어서 개별적 학습활동의 이중-삼중적인 지도지침의 제시(지도서)에서 돋보이며, 이는 우리의 교육현장에 있어서도 일관된 교육과정의 이념을 얼마만큼 다양하고 생생하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부단히 고민해야 하는 교사(교육자)에게 모범적인 착상(着想)을 진작시킬 것이라 기대한다.

※ 주제어: 독일 초등 음악교과서, 초등음악과 교육과정, 영역별 학습목표 및 내용, 학습시퀀스

차 례

I. 서 론

II. 본 론

1. 독일 초등 음악교과서의 발전과정
2. “초등학교와 취학 전 음악과 교육과정(1978)”의 내용체계
3. 교사용 지도서 “Musikunterricht Grundschule”
4. 음악교과서

III. 결론 및 제언

* 공주교대 및 전주교대 강사

I. 서 론

타 교과와 마찬가지로 음악수업을 위한 매체들 중에서도 교과서는 당연히 하나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음악교과서는 학생들에게는 음악을 직접 배워보도록 고무시키는 계기가 되고 음악에 관한 지식을 확고하게 다지는데 도움을 준다. 이제 독일과 미국의 경우처럼 음악교과서에 “음악”이란 제목을 더 이상 명시해야 할 의무가 없듯이 오늘날의 모든 교과서는 고정된 혹은 닫힌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모범적인 모델의 차원에서 보다 개방된 혹은 열려진 학습지도안을 제시하는 추세에 놓여있다. 그러나 꾸준히 변화하는 세계 안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음악적 주제와 화제를 그때마다 민첩하게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 자국의 고유한 전통음악과 다른 나라의 전통음악을 고루 섭렵하고 동시에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청각교재를 완비하는 등의 이상적(理想的)인 요청에 비해 구체적으로 하나의 음악교과서 및 지도서를 제작하는 일이 그리 쉽지가 않다. 현재 각 나라마다 사용되고 있는 음악교과서는 나름대로 오랜 동안의 집필기간과 교육기관의 엄정한 승인절차를 거쳤고, 여러 시대와 주제들 사이에서 편중되지 않는 음악의 보편적인 지식을 얻도록 최대한 고려하고 선택한 최선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각 영역별 주제의 비중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꾸며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같은 교과서 및 지도서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은 학습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교사와 학생의 시각(눈높이)과 현실적인 여건이 과연 충실하게 반영되었느냐는 점일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독일(Schleswig-Holstein 州)의 현행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가운데 하나인 “Musikunterricht Grundschule”의 내용을 살펴 보면서 그 [학습]영역별 활동내용이 어떠한 구상(Konzeption)을 따라 마련되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누구보다도 현직교사를 위한 논문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독일의 한 음악교과서 및 지도서의 분석이 아니라 우리나라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및 지도서와의 비교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면(紙面)상 함께 소개하지 못하는 “즐거운 생활(1-2학년)”과 “음악(3-4학년)”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전제로 논문이 전개될 것이다. 먼저 상기 연구와 관련하여 독일의 음악교과서 발전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난 다음 교육과정 및 교사용 지도서와 교과서를 분석하여 소개할 것이다. 분석과 평가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1) 영역구분에 따른 단원의 구성형식, (2) 지도안과 방법적 절차의 대체 가능하고 상호교환적인 다양성 제시, (3) 수업내용에 있어 개념별 및 영역별 연계성. 이로써 이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초등음악과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및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사하는 바를 제언하는 입장에서 끝맺을 것이다.

II. 본 론

1. 독일 초등 음악 교과서의 발전과정

1960년대 초반까지 독일 초등학교(Grundschule)에서는 대체로 아래의 교과서가 계속 사용되었다: “Singt und Spielt. Musikbuch für Schulen(노래하고 악기 연주하자. 학교 음악책[1957])” 및 “Musik. Ein Schulwerk für die Musikerziehung(음악. 음악교육을 위한 교과서[1959])” 혹은 “Unser Liederbuch(우리들의 노래책[1959])”. 한 마디로 학생들은 노래와 악기연주 중심의 “Musischen Erziehung(예술적 소양교육)”이란 차원에서 음악적 교양교육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이후부터 연방(聯邦)과 주(州) 단위로서의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면서 대대적인 학교정책의 변화가 일어났고, 각 주(州)마다 교육에 관한 개편작업이 시도되었다. 음악교육에 있어서도 물론 전반적으로 수업목표가 재검토되었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수업내용의 편성에 박차를 가했다. 음악의 기능면에서 볼 때 사교적 효과를 강조한 “Musik aktuell(음악의 실

제)”, 청각적 감지교육을 중시한 “Sequenzen(시퀀스)”, 행위중심적 음악수업의 관점에서 구상된 “Musikunterricht Grundschule(초등학교 음악수업)” 및 “Unser Musikbuch Dudelsack(우리들의 음악책 백파이프)” 등과 같은 교과서들이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H. Hopf, 1978, pp. 291). 이들 교과서들은 그 이전까지 노래와 악기연주가 음악수업의 전부라는 그동안의 진부한 생각을 과감히 탈피하는 일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이들은 음악수업을 더욱더 다양하고 새로운 절차에 따라 가르치고 익히게끔 도와주는 교과서를 누가 먼저 그리고 얼마나 더 참신한 소재와 구상을 따라 소개하는가 하는 경쟁마저 부추기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장하였다(W. Gieseler, 1986, pp. 234-240).

70년대에는 한 때 붕창했던 교과서 시장의 불경기를 극복하고 각 주마다(통독 전 11개주, 통독 후 16개주) 음악과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재정립되면서 각 주 교육과정에 걸맞은 “지방자치별 교재발행”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에 덧붙여 독일 특유의 다양한 학교형태에 맞춰 그에 적합한 교과서 및 지도서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및 교재편찬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행하게 되었다.

마를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70년대 말(1978/79년) 총 56종의 다양한 음악교과서가 집계되었고 그 가운데 자주 활용되었던 교과서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B. Marohl, 1986, pp. 396):

Musik um uns 5/6
Musik um uns 7-10
Musik um uns 11-13
Resonanzen Band 1
Resonanzen Band 2
Musik aktuell
Sequenzen 1. Folge
Sequenzen 1. Folge
*Unser Musikbuch für die
Grundschule - Dudelsack*

Das musikalische Kunstwerk
Lehrbuch der Musik Band 2
Garbe 1-3
Garbe 4
Ton und Taste
Musik im Leben Band 2
Banjo Musik 5/6
Musikunterricht Grundschule
Klang und Zeichen Band 2
Musikbuch-Primarstufe B
Wege zur Musik Band 1

위 목록 중 *이태릭체*로 표기한 음악교과서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대체로 젊은(27-33세의) 교사는 “*Musikbuch-Primarstufe B*”와 “*Musikunterricht Grundschule*”를, 비교적 현직 경험이 많은(34-42세) 교사는 “*Dudelsack*”을 선호하였다고 전한다.

일부 음악교과서 저자들은 관례적인 것에서 탈피하라는 시대의 요청에 귀 기울임으로써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교과서(예컨대 “*Banjo Musik* [벤조 음악 1978/79]”, “*Banjo Liederbuch* [벤조 노래책 1982]”, “*Musik hören-machen-verstehen* [음악 듣기-만들기-이해하기: 5/6,7/8,9/10학년용, 1979/1982/1986]”)를 저술하였고, 어떤 이들은 사회치료의 수단으로서 음악을 이해하고 다루려는 차원에서 음악적 치료를 의도한 교과서(예컨대 “*Musikkontakte* [음악접촉 1983]”, “*Spielpläne* [연주계획들: 5/6,7/8학년용, 1984/1986]”)를 저술하였다. 또한 “*Unser Liederbuch. Musik um uns* [우리들의 노래책. 우리주변의 음악 1982]”, “*Musik um uns* [우리주변의 음악: 11.-13학년용, 1983]”, “*Singt und spielt* [노래하고 악기연주하자, 1986]”와 같은 교과서들은 60년대의 제목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그 형식과 내용 면에 있어서 새롭게 개정된 혹은 계속되는 연재물로 출간된 것들이다. 1985년 이후에는 독일의 전통적인 노래와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새롭게 구상된 교과서(“*Musik Cassette* [음악 카세트: 5/6,7/8학년용, 1981/1982/1986]”)가 편찬되었는데, 90년대 초반에 출간된 “*Die Musikstunde* [음악시간]” 혹은 “*Musikland* [음악나라]”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제작된 교과서로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저자들과 다양한 출판사들에 의해 제작 및 출간된 음악교과서와 지도서들은 저마다 독특한 구상을 따라 마련되었기에, 또한 그런 관점에 따라 수요자들의 기대와 평가를 받으면서 활용되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출판물(교과서 및 지도서)이 최소한 각 저자들의 고유한 구상에 기초하여 분명하게 구별되었으니, 예를 들어 학문적 성찰과 근거를 중시한 교재인지 혹은 학습자료물 제시 위주의 교재인지 혹은 어느 일정영역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교재인지 혹은 실제 학습현장에서 교사중심의 수업방식을 다룬 교재인지 혹은 학생을 중심으로 교사로부터의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고려한 교재인지 등등 각 관심사에 따라서 각 교재들을 분류하고 선택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다른 한편 각 분야별 전문적으로 혹은 독창적으로 음악학습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낳았다고 사료된다.

2. “초등학교와 취학 전 음악과 교육과정(1978)”의 내용체계

2004년 슬레스비히-홀슈타인 주(州)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는 108개로 1179개 반이다. 대략 26,200명의 초등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만 7세~10세에 해당되고 주당 1/2학년은 20시간, 3/4학년은 24시간의 정규수업시간 중 음악교과는 각 1시간, 2시간이 배당되어 있는 실정이다.

1) 음악수업의 과제

“초등학교와 취학 전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우선적으로 “음악수업의 과제”에 대해 밝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음악과 학교”의 관계에 있어서 취학 전의 잠재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축적된 음악적 인상을 음악적 경험의 기회(출발점)로 삼는다. 다시 말해서 이미 습득한 현대음악이나 대중가요, 악기들, 생활도구, 목소리 모두가 음원의 도구이며, 이들을 실험하고 구성하는 시도들이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모든 종류의 음악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고 받아들인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음악적 관심과 능력을 배양하고, 재능을 발견하고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음악수업은 그의 과제로서 음악이론 또는 시창연습을 위한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오히려 음악적 청음과 개관을 위해 도와주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리하여 “여가시간의 증가로 음악적 활동의 욕구가 증가하는 만큼 이론적 지침보다는 스스로 음악하기에 매력을 느끼고 음악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이끄는 것이 이 과제의 중심과제인 셈이다.

“초등학교에서의 음악”에서는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준비된 마음으로부터 점차 음악을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일이 급선무다. 그리

하여 주변에서 음악을 접하는 기회에 단지 수동적인 태도를 벗어나 직접 음악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게끔 배워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때 교사는 무엇보다도 음악적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동기유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학생들의 다양한 눈높이와 관련된 학습소재를 취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주지시킨다. 수업방법에 있어서는 음악을 듣고, 음악에 대해 숙지하는 것과 더불어 노래하기와 악기연주하기, 움직이기, 실험하기, 즉흥연주하기, 기보하기와 같은 직접적인 음악하기가 다루어진다. 특히 노래하기는 다같이 어울려 활동을 하고 어린 목소리의 발달과 관리에 배려를 아끼지 않도록 요구한다.

2) 초등학교 음악수업의 학습목표

학습목표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인지적이고 음향-감각적 학습목표”로서 “음악적 감지력의 발전, 음악적 상상력의 발견, 음악적 개념의 전달, 음악을 표기하고 서술”할 수 있게 하기/ 둘째는 “정의적인 학습목표”로서 “음악을 감정과 연결”시킬 수 있게 하기/ 셋째는 “심동적 학습목표”로서 “악기를 다루는 기능, 가창조절능력, 음악을 신체표현과 그래프로 전이”할 수 있게 하기/ 넷째는 “사회적 학습목표”로서 “연주규칙에 유의, 적응, 경청, 다른 의견에 동의”할 수 있게 하기가 초등학교 음악수업의 학습목표라 정하고 있다.

3) 음악수업의 활동영역구분과 학습목표

음악수업의 활동은 모두 7개의 영역으로 세분되어져 있으며, 각 영역별 학습목표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선명하게 주제화(문장형식으로)되어 있다: 예컨대 (1) “음악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음악과 프로그램)”, (2) “어떻게 음악을 만들까(소리생산, 소리형태)”, (3) “우리들의 목소리는 악기”, (4) “음향은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파라미터)”, (5) “음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형식의 원칙과 형식의 진행)”, (6) “음악을 어떻게 기보할까”, (7) “우리 환경속의 음악” 그리고 각 영역별 학습내용과 교수지침 및 목표가 그때마다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이념은 간단히

“이해와 활동영역”이라 (개념위주로) 칭하고는 활동영역에 있어서 다시금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네 가지로 구분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입장에서나 교사의 학습지도에 있어서나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소개된 점과 비교된다.

4) 학년에 따른 활동영역의 규정

전체 7가지 활동영역은 다시금 학년에 따라 재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해당 학년의 연령과 신체 및 능력의 발달정도를 고려하여 학습영역의 단계를 재편성한 것이다: 취학 전과 1학년 초등학생은 “음악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I), 어떻게 음악을 만들까, 우리들의 목소리는 악기(I), 우리 환경속의 음악(I)”을 중심으로, 2학년의 경우에는 “음향은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음과 소음, 썸여림, 속도와 길이, 음색, 음높이와 흐름)”을 중심으로, 3학년의 경우에는 “우리들의 목소리는 악기(II), 음악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느낌과 감정표현: II), 음악을 어떻게 기보할까(I), 음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I)”를 중심으로; 그리고 4학년은 “음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II), 음악을 어떻게 기보할까(II), 우리 환경속의 음악(III)”를 중심으로 그 학습내용을 정하게끔 한다. 동일 학습영역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기초활동(I) 및 심화활동(II)을 구분하여 고려하고 있다.

5) 수업 시행의 지침

모든 교과를 지도하는 1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음악시간은 이틀에 나누어 수업을 하고, 같은 학년의 학생에게 교과전담교사가 음악수업을 하는 경우 가능한 한 같은 반에서 심화활동과 관련된 수업을 권장하는 지침은 물론 교실 및 음악실의 설비와 수업 외 음악활동에 관한 사항까지 꼼꼼하게 지침을 마련해놓고 있다. 더욱이 노래곡의 목차, 참고문헌, 교구사용(예: 칠판, 시청각기기, 음반, 오선칠판, 악기도표자료, 피아노, 오르프악기[기본, 확대, 신설편성], 메트로놈, 모노코드, 보면대)에 대한 주도면밀한 지침을 제시하고, 수행[능력]평가는 일정 영역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오로지 학습목표

를 도달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회수된 학습지, 수업 시간의 토론참여, 음향실험 중의 과제수행 능력(상상력과 판단력), 음악적 현상의 이해와 묘사를 구술과 그래프로 표현하는 능력, 음악서류철 작성의 성실함 등의 다양한 기준을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권장한다(E. Nolte, 1982, pp. 351-368).

3. 교사용 지도서 “Musikunterricht Grundschule”

1) 지도서의 개요

1991년 독일 쇼트 출판사에서 발행된 203쪽 분량의 이 지도서는 교과서가 2권(1/2학년용, 3/4학년용)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 반해 단 1권으로 엮여져 있다. 따라서 2권의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악보, 사진과 그 밖의 자료는 최소한의 악보제시와 서술식 설명으로 다듬어졌다. 일찍이 1976년에 출간된 지도서의 문제점들이 삭제되고 경험 많은 교사들의 의견을 새롭게 수렴하여 보강한 것이다. 대부분의 지도서와 마찬가지로 “서문”, “초등학교 음악수업의 교수-학습 목표, 기대되는 학습성과”의 설명에 뒤를 이어 “세부 학습영역에 따른 내용체계 및 지도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어 “초등학교 음악수업의 학습 성취평가, 초등학교 리코더 지도과정을 위한 지침”이 소개되고, 약어, 참고문헌, 인명, 전문용어, 듣기자료 목차, 저자소개를 수록한 “부록” 등의 <목차>가 과거에 비해 무엇이 달라졌고 또 우리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일별(一瞥)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리코더 지도과정 지침은 특기적성반이나 동아리 모임을 지도하기에 필요한 간단한 지침과 방법적 제안 및 악보 예들이 과거와 다르며, “부록”의 목차들은 우리나라 음악교과 지도서들에서 볼 수 없는 내용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겉모습을 넘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지도서의 중심내용은 우선 3가지 주요매체(교과서/지도서/듣기자료)에 대한 <서문>의 원칙적인 정의로부터 직접 실감할 수 있다: ① “**교과서**는 학습을 위해 선정한 자료들을 제시해야하며, 그 자료들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차원에서 학습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선정한 자료들은 개방적이고 의미심장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고무시키는 것들로 꾸며져야 한다. 예를 들어 도표 그리기, 사진 찍기, 순서 매기기 및 보충설명하기 등등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위한 자료들이 선호될 수 있다. 그로써 호기심과 실험적인 활동을 음악교육 안에 배가시키고 학생들 자신의 발견(창작)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의도해야 한다.”

② “지도서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목적을 지향한다. 하나는 학습내용의 적절한 선정과 아울러 그 절차제시를 분명히 하고 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자료들을 교사가 신뢰와 자신감을 가지고 활용하고 또 예상치 못한 다른 수업상황에서도 그 가능성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정보가 필수적으로 수록되어야 한다”:

- 지도지침: 수업내용의 선정과 준비를 위한 지침
- 학습자료: 개별적인 ‘듣기자료’에 관한, 혹은 음악이론적인 개념들에 대한 확실한 정보
- 수업의 방법적 절차를 위한 제안: 실천적인 수업을 위해 고무적인 것들을 최대한 자세히 중재하고, 교과서 학습자료들을 생동감 있는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¹⁾.

1) 이 같은 정의(定義)적인 원칙에 준하여 여기에 시도하는 방법적인 아래의 지침들은 이미 교과서 전반에 대해 통찰하고 듣기자료에 대한 간단한 실험으로 구체적인 수업가능성을 앞서 예단하는 경험 많은 교사들에게는 물론 “꼭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지도서>는 부언한다. 오히려 음악전공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음악수업을 위해 남달리 충고와 조언을 필요로 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한편 수업지침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방향설정이 혹시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해하지 않도록 영역별 주제마다 선택 가능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A1, A2...)에 대해 참조하도록 제의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학생들의 수준 및 상황을 고려하여 순서를 바꾸는 방안으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지만, 나아가 충분한 시간 및 학생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이 주어졌을 경우라면 다음 두 가지 가능성(차별화된 수업방식 제안: D1, D2.../ 확장시킨 수업방식: E1, E2...)을 제의한다(참조 MG 7).

③ “듣기자료(카세트): 교과서 및 지도서에 따라서 그때마다 필요한 듣기 자료를 녹음하여 수록한 것이다.”

이어서 소개되는 활동영역 혹은 학습영역의 구분은 모두 어린이들의 입장(눈높이)에서 음악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보려는 물음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이는 지도서가 밝히듯 아벨-슈트르트(S. Abel-Struth, 1972, p. 51/ p. 68)의 연구에 기초한 것으로서 초등학교생들이 “모든 학습영역을 모두 수행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와 유사한 음악적 현상들을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예들과 연계시켜 소개하는 수업”이 되도록 배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영역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도 “과제의 해결, 학습과정의 연속성, 커리큘럼의 개방성(미리 계획했던 순서를 뒤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특히 “학습단계를 수준별로 수준을 정하는 경우 지금까지 알려진 정도에서 구상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가능성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다수의 학습영역을 2~3개의 학습시퀀스로 묶어 시도하는 구상” 또한 활용하였다. 교과서를 1권과 2권으로 나눈 것도 “다양한 연령에 따라 적절한 학습시퀀스를 좀 더 세밀하게 적용시켜 보려는 취지였고, 그로써 학습내용의 자연스러운 확장과 나선형식의 반복과 발전을 통한 학습원칙을 실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2) 초등 음악교육의 교수-학습목표

앞서 교육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도서에서도 “초등학교 음악수업은 예나 지금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인지적-정의적-심동적 및 사회적 학습목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이들 다양한 학습목표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하나의 음악수업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도서는 초등학교란 명칭의 초등(Grund)은 “그 이후 벌어질 교육과 직결된” 의미를 띠는 사실을 되새기며, 초등학교에서 요구되는 교수 및 학습목표는 앞으로 이어질 모든 교육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하게끔 배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도서는 음악수업의 교수-학습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교사를 고무시키고 있다: 곧 첫째 “감지 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구분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둘째 “감정

의 발전을 위한 기여로서의 음악교육(체험능력의 발전)”, 셋째 “음악적 예술 작품을 이해하고 음악적 삶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동기부여로서의 음악교육(음악적 관심의 발전)”, 넷째 “예술을 이해하고 즐기도록 이끌어 주는 것으로서의 음악교육(음악적 능력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학습영역별 학습목표

지도서는 음악학습을 통해 도달해야 할 각 학습영역별 목표를 자세하게 이해시키고 있다. 예컨대 각 학습영역별로 보자면, ① “우리는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춘다”(제1영역)에서는 “가사와 함께 가급적 많은 민요들에 대해 친숙해지고, 노래를 부르고 원초적인 악기로 반주하며 스스로 혹은 그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삼는다”고 하며, ② “음악은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다”(제2영역)에서는 “주변세계의 소음을 분별하고 진술해 내며 [음악기호로] 표기하고 목소리 혹은 악기로 혹은 다른 물체로 흉내를 내는 능력 함양을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서 주변세계의 소음을 일정한 관점에 따라, 예컨대 크기, 음색, 출처 등으로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소리-실험 및 형태 재현과제를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모둠 단위로 시도하게끔 권장한다. 또한 어떤 매체를 음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지, 혹은 정해진 인원 및 실제 상황 혹은 행동방식에 따라 구상하는 능력과 일정한 악기의 선택, 짜임새, 강세, 빠르기, 형식의 구성 등등. 프로그램-음악에서 일부를 잘라내어 개별적인 장면을 기본적인 동작과 연계시키는 능력 함양을 이 영역의 학습목표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③ “음악을 어떻게 만들까?”(제3영역)에서는 “소리의 생성에 있어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구별해내는 능력과 창작악기 및 전통악기를 정해진 구별기준에 따라 배열하는 능력(예컨대 재질, 크기, 형태, 소리의 종류, 음색 등에 따라) 그리고 발음의 물리적인 기본원칙을 요소에 따라서 진술해보고 그 근거를 밝히는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삼는다(떨리는 소리의 발생 및 뜯고 당기고 불고 때리는 동작으로 연주되는 악기들과 함께 소리의 강세를 구별해내는 원칙 숙지)”고 설명한다. 이에 “오르프-악기군에 대한 이해(친숙)나 적절한 소리가 나도록 하는 능력(특수한 채의 활용법, 익숙한 손놀림, 반응능력 등)”을 배양하고, “전통 오케스트라 악

기에 대한 이해,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파곳, 트럼펫 등등에 친숙하며 음색을 서로로부터 구별해내는 능력 또한 배양하는 일과 새로운 음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소리모양 표기(음향점, 울림음, 유동음향, 음향띠의 표기; 미끄러지는 소리, 클러스터) 숙지” 또한 이 학습목표의 일부가 된다. ④ “우리들의 목소리는 악기”(제4영역)에서는 “다양한 목소리 기능과 음성의 활용양식 명명하기, 표현하기, 소리실험을 통해 적용하기 등을 배우고, 목소리(어린이, 여자, 남자 어른 목소리 등)와 합창단(어린이 합창단, 혼성 합창단)의 목소리를 음색에 따라 구별하는 능력 배양”을 학습목표로 삼는다. ⑤ “음향은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제5영역)에서는 “소리의 크기, 짜임새, 빠르기 및 음길이, 음색, 음높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과 소리의 특성을 내에서 크기, 짜임새, 빠르기 및 음길이, 음색, 음높이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혹은 중간단계를 따라(예컨대 크게 - 중간 - 작게 / 높게 - 중간 - 낮게) 귀 기울이면서 반응하고 기보하는 식으로 구별해내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삼는다. 나아가 “박자 개념, 강약의 조절, 멜로디, 걸음걸이 및 뛰어가기 음정, 화음, 두 음의 어울림, 코드, 클러스터 등등 온음, 반음, 4분음표, 8분음표의 개념 및 표기, 그에 상응하는 쉼표에 대해 알아보고 기보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도 이 영역의 학습목표가 된다. ⑥ “음악을 어떻게 기보할까?”(제6영역)에서는 “간단한 소리형식 및 합음을 위한 기호 내지 표기가 다시금 목소리 및 악기를 통해 재현될 수 있게끔 한다. 듣기를 통한 기보 및 그리기 학습, 그 순서 맞추기 등, 전통적인 기보의 기본개념 인지학습, 총보에 대한 진술 및 암기학습: 음계, 높은 음 자리표, C장조 음계의 음명, 임시표, 높낮이, 내림나음 및 올림바음, 제자리표 등등, 전통적인 기보형식에 따른 총보를 대하면서 듣기에 대한 기대치를 진술하기, 기대했던 것과 사실적으로 들은 인상을 서로 비교하기, 전통적인 형식에 따른 총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다양한 악곡의 예들이 질서 있도록 하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삼는다. 또한 “전통적인 형식에 따라 간단한 선율을 하나의 건반에서 연주하고 음판악기 혹은 피아노를 활용하여 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는 일”이 이 영역의 학습목표에 속한다. ⑦ “음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제7영역)에서는 “음악의 중요한 형식원리 알아보기: 구성, 반복, 대조(음악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유사점과 차이

점이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기 및 들으며 파악하기), 형식의 진행에 대해 알아보기: A-B-A 형식, 론도형식 등. 음악작품에 대해 듣고 재확인하는 능력, 개별적인 특징들을 진술하기 등”을 학습목표로 삼으며, 이를 위해서 단순한 형식경로는 물론 경로에 대한 간략한 스케치 혹은 철자로 표현하는 수업방식을 따라서 지도할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한다.

그 밖에도 지도서는 영역별로 학습 성취평가 및 학습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결과를 인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며 조절함으로써 학습의욕을 북돋는 또 다른 가능성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장려하며 그때마다의 학습영역과 관련하여 보충할 만한 주석과 참고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4) 학습영역별 내용분석²⁾

상기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도록 수업을 지도할 교사를 위한 지도서는 수행방법의 절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차시별 지도안 제시가 아니라, 기본 지도안에 이어서 그 대체가능한 지도안, 더욱 확장된 지도안, 차별적인 지도안을 덧붙여 소개하고 있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아래의 표에 우선 1/2학년에서 배워야 할 활동내용과 방법에 관련하여 지도서가 상세하게 제시하는 바를 요약하여 보았다.

2) 여기서 시도하는 지도서 분석은 실례로서 1/2학년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소개할 것이다. 이유는 3/4학년의 학습내용과 관련된 지도방법에 대한 설명 및 지침이 1/2학년의 그것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첫 번째 학습영역이 3/4학년의 경우에 별도로 취급되지 않고, 다른 학습영역 전체에 산재해 있다. 다시 말해 3/4학년의 경우 다른 학습영역에서 그때마다 필요할 경우 ‘노래부르기’를 위한 악곡이 제시되도록 꾸며져 있다.

<표 1: 1/2학년해 해당하는 부분의 지도서 내용체계>

학년	학습영역 구분	내용 구성 및 교수지침	방법적 지침
1/2 학년	1. 우리는 노래하 고, 악기를 연 주하고 춤춘다	노래곡은 총 35곡, 놀이요, 춤곡, 동물관련 노래곡, 가을, 대림-성탄 절노래, 국가 순서로 제시, 초등학교 교에서의 가창지도의 원칙으로 호 흡과 발성지도 지침제시, 적절한 조성과 음역으로는 오음음역의 사 장조 또는 바장조곡, 옥타브음역의 마장조 또는 라장조곡, 노래부르기 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지도내용, 7곡을 제외한 모든 곡의 발성지도, 악기반주와 신체표현 방법설명	- 1가지 기본 지도 안(A1): 18곡 - 2가지 대체 지도 안(A2): 14곡 - 3가지 대체 지도 안(A3): 2곡 - A와 확장 수업안 (E): 1곡
	2. 음악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시퀀스 I: 음악은 자연의 소 리를 표현한다: 4개의 주제와 11 제재곡 학습 시퀀스 II: 음악은 인간과 공 상 동물에 관해 이야기한다: 1개 주제와 5제재곡, 표제음악곡 중심, 13곡에 교수지침, 8곡에 참고자료 제시, 8곡의 노래곡 발성지도	- A1: 4곡 - A2: 11곡 - A3: 1곡 - A와 차별되는 지 도안(D): 3곡, - A와 E: 3곡
	3. 어떻게 음악을 만들까	학습 시퀀스 I: 6개의 주제와 9제 재곡, 다양한 음향을 생성하는 악 기들과 그의 행위, 음향의 다양한 기보, 10곡에 교수지침, 7곡에 참고 자료 제시, 2곡의 노래곡 발성지도	- A1: 5곡 - A2: 5곡 - A와 D: 4곡, - A와 E: 4곡
	4. 우리들의 목소 리는 악기	학습 시퀀스 I: 3개의 주제와 1 제재곡, 만화와 시, 3곡에 교수지 침, 1곡에 참고자료 제시, 1곡의 노래곡 발성지도	- A2: 2곡 - A3: 1곡 - A와 D: 1곡, - A와 E: 3곡
	5. 음향은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	학습 시퀀스 I: 2개의 주제와 5 제재곡, 시, 음향과 크고 작은 소 리, 5곡에 교수지침, 3곡에 참고 자료 제시	- A2: 4곡 - A3: 1곡 - A와 D: 3곡, - A와 E: 4곡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2학년의 학습영역별로 제시된 주제 및 제재곡의 수는 무척 상이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1/2학년에서는 노래하고 악기연주하며 춤추는 학습영역의 제재곡이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의 활동내용과 비교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녹음자료의 경우 제1영역에서는 독일국가와 관련된 제재곡만 제시된 반면, 그 밖의 다른 학습영역의 제재곡들은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1/2학년 학생들이 다른 다양한 음악활동과 더불어 손쉽게 부를 수 있는 간단한 노래곡의 반복학습의 경향 때문으로 여겨진다). A와 E의 결합은 때에 따라서 기본 수업안을 보충하는 혹은 A2나 A3도 보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A와 D의 차별적 관계 역시 A2나 A3에서도 그와 차별되는 지도안이 있을 수 있다. 즉 수업의 진행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속도 상황과 수준 그리고 교사의 능력이 순간순간 고려되어진 다양한 형태의 수업안을 다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각기 주제 및 제재곡에 필요한 교수지침과 참고자료가 아주 상세히 제시되어 수업 전 연구를 지도서만 가지고도 정보제공을 넉넉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3/4학년의 학습영역에 있어서는 1/2학년의 제1영역이 제외되고, 제6영역인 음악을 어떻게 기보할까, 제7영역인 음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가 추가된다. 이들 학습영역별 주제와 제재곡의 수는 대체로 유사하게 분포되었다. 지침과 참고자료 제시 역시 1/2권의 경우와 유사하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이해”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별다른 지침이 없는 만큼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모든 학습활동을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듯한 인상을 심어준다.

4. 음악교과서

1) 교과서의 구성적 개요

교과서는 1/2학년용(제1권)과 3/4학년용(제2권)으로 되어 있다. 구성적 체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2: 교과서의 구성적 개요>

	제1권	제2권
표지제목	초등학교 음악수업 학생용 책 1권, 1/2학년 (Musikunterricht Grundschule Schülerband I 1/2. Schuljahr)	초등학교 음악수업 학생용 책 2권, 3/4학년 (Musikunterricht Grundschule Schülerband II 3/4. Schuljahr)
저자 ³⁾	빌프리트 피셔(Wilfride Fischer), 에리히 한센(Erich Hansen), 옌스 야콥센(Jens Jacobsen), 마르틴 쉘츠(Martin Schulz)	
삽화	크리스타 에스텐펠드-크롭(Christa Estenfeld-Kropp)	
그래픽디자인 & 레이아웃	크롭(H. J. Kropp), 조교: 크리스티만(I. Christmann)	
출판사	쇼트 출판사(©B. Schott's Söhne), 마인즈 1991	
크기	가로 21cm, 세로 30cm, 칼라인쇄, 96쪽	좌동, 108쪽
사진촬영	크롭, 크리스티만, 쇼트출판사 서고	
그림 및 사진출처	23쪽: 레싱(U. Lessing) 44/45쪽: 바바리아 화보기획사 48/52/63쪽: 독일 출판기획사(dpa) 60쪽: 피셔(W. Fischer) 64쪽: 소노르(Sonor) 타악기사 서고 71쪽: 야콥센(J. Jacobsen)	8쪽 위: 피셔(W. Fischer) 8쪽 가운데: 프레스텔 출판사, 루드비히왕 2세 상영물 -리하르트 바그너 마이스터징거”(1970) 8쪽 아래: 슈렉켄베르크(G. Schreckenbergl) 40쪽: 독일 출판기획사(dpa) 42쪽: 쉘로스케(W. Schloske) 44쪽: 독일 출판기획사(dpa) 45쪽: 독일 출판기획사(dpa)

- 3) 피셔(1983-): 함부르크 음대에서 학교음악, 피아노, 지휘전공, 함부르크대학교에서 음악학, 독문학 전공, 플렌스대학, 쾰른대학교 교수 역임, 현 1983이래 파더본대학교 교수, 전공분야는 행위중심적 음악수업의 교수법, 초등 음악지도의 지도와 방법, 음악수업의 실제적 기술; 한센(1929-): 플렌스대학과 튀빙엔대학교에서 교육학, 오르겔전공, 1974년 이래 슈레스비히-홀슈타인주 학교의 음악과 이론과 실습 연구소 책임자, 현 1982년 이래 고등학교 교장, 1991년부터 뉘른베르크/포어폴멘주 지방자치 학교와 교육연구소 회원; 야콥센(1932-): 플렌스대학에서 수학, 많은 학교에서 초,중등교사로서 역임, 음악교육 발전에 힘쓰고 교회합창단 설립운영, 1969년 이래 노이빈스터/뉘토르프의 초중등학교 교장과 음악과 교사연수 교육담당; 셸츠(1932-): 괴팅겐, 데트몰드, 하노버에서 수학, 초,중등교사자격증 획득, 1974년 이래 플렌스교육대학에서 음악, 음악수업의 지도법 담당교수.

2) 교과서에 사용된 그림기호

두 권의 교과서 전체에서 사용된 악기 중 플루트라고 쓰인 부분은 리코더 및 부는 악기로 연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밖의 악기는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호형태로 일관되게 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재재곡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학습영역 안에서만 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다른 영역과 연계된 사항을 교과서 아래의 왼쪽 혹은 오른쪽에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써 학생이 하나의 노래곡을 (노래)부르는 활동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을지 스스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 교과서의 그림기호 설명>

악기	활동영역
 실로폰	
 메탈로폰	
 글로켄슈필	
 손북(테북)	 노래하기와 말하기
 탬버린	 악기연주하기
 트라이앵글	 듣기
 소리막대(클래브스)	 춤추고 움직이기
 나무토막북(우드블럭)	 연극하기
 징 또는 심벌즈	 연가하기
 방울다발	 기보 및 작곡
 나무관북	 직접 만들기
 봉고	
 원형흔들이(룸바 마라카스)	
 작은 북	
 피아노	

3) 1/2학년 학습영역별 내용분석

제1영역과 제2영역 및 제3영역에 해당하는 제재곡이나 활동주제에 비해 제4영역과 제5영역의 학습량은 매우 적은 편이다. 학습지를 통한 학습 성취 평가는 제3영역과 제5영역에서만 실시하도록 제시하였다. 학생들의 교과서 목차부분과 각 쪽의 위부분에 특정한 색으로 표시하여 각 학습영역을 쉽게 파악하도록 도와주었다.

① 제1영역 - “우리는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춘다”(노란색): 제재곡의 조성으로는 바장조 17곡, 사장조 8곡, 라장조와 다장조가 5곡이다. 박자로 는 4/4박자 8곡, 3/4박자 6곡, 2/4박자 14곡, 2/2박자와 6/4박자가 각 1곡씩, 6/8박자는 2곡이다. 나머지는 변박자에 해당한다. 이 교과서에 수록된 곡을 노래하기 위해 조성에 따른 계명을 배우기보다는 교사의 시범창을 듣고 따라 부르는 방식이 선호된다. 어차피 리코더나 음판악기의 사용으로 계명창 위주보다는 음명을 위주로 하여 음을 익히도록 하였다. 악기의 사용은 노래 곡의 전주, 간주 및 후주를 하도록 오스티나토와 보르든 형식의 반주 악보가 11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시되었다. 말리듬으로 혹은 빈 병 혹은 파이프에 입김을 불어넣어 소리 나게 하여 반주하는 곡도 있다.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로 반주를 하면서 곡에 맞는 신체표현 혹은 춤을 추도록 동작의 설명이나 공간의 진로를 제시한 곡은 20곡에 해당된다.

② 제2영역 - “음악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주황색): 바람, 물소리, 빗방울, 천둥번개, 동물을 설명한 제재곡이 표제음악의 차원에서 그림악보, 오선악보는 물론 다양한 삽화와 함께 소개되었다: 로시니의 “빌헬름 텔” 서곡 중 폭풍우 음악, 쇼팽: “빗방울-프렐류드”,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천둥번개음악, 음악하기를 위한 한 동화 “굴뚝새와 꿈”, 생상스: “코끼리와 캥거루”, 립스키-코르사코프: “왕벌의 비행”, 슈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 중 “농부와 꿈”, 슈트라빈스키: “서커스-폴카, 모짜르트: “후궁으로부터의 유괴” 중 오스민의 아리아,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중 “난장이”, 무소르그스키: 닭발위의 오두막“, 오르프: “마녀의 주문”, 헨체: 제3심포니 중 “주술춤” 등등. 1/2학년 대상의 곡 수준을 고려할 때 어느 시대 음악이 가장 적합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소리가 주는 인상 자체에 관심을 두었기에 시대의 범

위는 그만큼 넓어진 것을 엿볼 수 있다. 이 학습영역의 내용은      의 활동들과 통합되어졌다.

③ 제3영역 - “어떻게 음악을 만들까”(빨간색): 학습내용으로는 음향을 다양하게 표기하며 특히 악기소리를 기호로 나타낸다. 두드리는 것과 북을 치기, 오르프악기, 굿기와 뜯기(바이올린과 기타 - 슈트라빈스키: “악마의 춤”), 리코더와 버들피리 불기 등이다. 악기의 구조원리를 그림이나 사진으로 정확히 인지하고 울림의 길이, 높낮이, 연주주법에 따라 점, 선, 모양으로 표기하는 활동과 관, 현, 뜯는 악기를 직접 제작한다. 악기합주를 지휘하는 동작 대신 학생 스스로가 연주그룹을 몸짓으로 지시하는 사진을 통해 오르프 악기로 즉흥연주하는 동안 한 학생이 즉석에서 지휘하는 활동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역의 내용들은      의 활동과 연계되어있다.

④ 제4영역 - “우리들의 목소리는 악기”(파란색): 활동내용으로는 그림동화를 보고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를 표현, 베버: “마탄의 사수” 중 귀신들의 합창, 브레멘시의 음악가들과 관련된 동물들의 소리를 목소리로 낸다. 독일의 어린이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친숙한 인형극을 지켜보고 있는 어린이들의 시선처리, 표정까지도 목소리로 표현해 보는 내용들이    의 활동과 연계되어있다.

⑤ 제5영역 - “음향은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보라색): 활동내용으로는 음과 소음(슈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 중 “시장”), 크고 작은 소리: 메아리(오를란도 디 라쏘: “헤이, 아주 좋은 메아리”, 점점 크게, 점점 작게 됨: 아이생 일날에 목소리와 악기로 연주하자, 소리모양과 그림악보(하이든: “이별심포니” 중), 악기편성을 소개하는 칼라 막대악보 등이 활동내용에 속한다. 이 내용들은      의 활동과 상호작용 한다.

4) 3/4학년 학습영역별 내용분석

위의 지도서 내용분석은 1/2학년만 다루었기에, 여기 3/4학년 교과서의 주제와 재재곡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말한 대로 3/4

학년의 학습영역은 제1영역이 빠지고, 제6영역과 제7영역이 추가된다. 학습지 및 학습 성취평가는 제3영역, 제5영역, 제6영역과 제7영역에서 실시되도록 권하였다. 영역별 내용은 다양한 삽화 및 사진자료는 물론 그림악보 및 오선악보의 제시로 분명한 정보제공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어 교과서의 뒷부분은 노래곡의 알파벳모차, 글의 알파벳모차, 피아노 모의건반(2옥타브 범위, 온음명, 반음명), 오케스트라 악기 그림표, 소프라노 리코더의 주요 운지표(독일식, 바르크식)가 학년 수준에 걸맞게 소개되어 있다.

① 제2영역 - “음악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주황색): 학습내용으로는 음악은 기분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슬픔-분노-기쁨-모짜르트의 “요술피리” 중 파파게노의 아리아; 베토벤: “피델리오” 중 감옥장면; 바그너의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중 격투장면), 구스타프 말러: 제1심포니, 어떤 선율이 어떤 가사에 어울리나? 파울 힌데미트의 “화가 마티스” 심포니, 그림에 어울리는 곡(세 천사가 노래하네), 음악은 이야기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페르컨트” 중 “산왕의 궁전에서”, 이고르 슈트라빈스키의 “불새에 관한 전설” - 불새, 요술정원, 공주들의 춤, 마술사, 결혼식,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틸 오일렌-슈피젤”, 어떤 장면과 그림악보가 연결될까, 알렉산더 보로딘의 “중동아시아의 걸음장면”, 테오도르 쾨르의 “살라만카의 악마”. 이 영역의 학습활동은 의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

② 제3영역 - “어떻게 음악을 만들까”(빨간색) [학습시퀀스(II)]: 악기들은 어떻게 소리나는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피터와 늑대” 현악기군(슈베르트: “송어5중주”와 “송어” 노래곡), 바이올린/기타 - 바하: “론도형식의 가보트”, 파울 힌데미트의 “관악5중주” 막대악보, 갈대청으로 어떻게 직접 악기를 만들 수 있을까(목관악기군: 오보에, 파곳, 플루트; 금관악기군: 트럼펫, 호른, 트럼본), 팀파니, 취구의 다양한 형태, 음색충보(요한 세바스티안 바하: “성탄절 오라토리오” 중 합창(하늘 높은 곳에서);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의 “불꽃놀이음악” 및 “수상음악” 중에서; 요셉 하이든의 내림마장조 “프렘펫합주” 중)와 막대악보,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악기들: 우편호른 신호음, 그림과 음악곡의 연결이 학습내용에 속한다. 이 영역의 활동들은 의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

    의 활동과 연계되어있다.

③ 제4영역 - “우리들의 목소리는 악기”(파란색): 말과 말하기, 방송, 시장, 술집, 인터뷰(말리듬: 에네, 메네, 밍크, 망크), 칼 마리아 폰 베버의 “마탄의 사수” 중 “늑대계곡 안에서” 소리모양, 음악적인 모험, 죄르기 리게티의 “모험” 중 그림악보, 콧프레도 페트라시의 “목소리를 위한 넌센스” 중, 그림과 글, 목소리는 구별된다: 모차르트의 “요술피리” 중 “파-파-파”, 누가 무엇을 노래할까?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의 “마태복음 수난기” 중 혼성합창, 어린이 합창단, 오케스트라반주;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을 다같이 불러보자. 한편 오선악보의 학습내용과 연계된 활동은      들이다.

④ 제5영역 - “음향은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보라색) [학습시퀀스(II)]: 빠르게, 느리게: 일정박; 루드비히 판 베토벤의 제8번 심포니 중 “알레그레토 스케르잔도”, 4,3,2박자를 구분하는 마디(말리듬), 길고 짧게: (시계가 어떻게 가나), 쉼표: (쉼표모자), 마술주문(말리듬), (나무위에 뼈꾸기 한 마리 앉아있네); 쉼표게임: 동물들 알아맞히기(말리듬), 그림카드, 파울 힌데미트의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다” 중 도둑놀이 “이제 밤이다”, [학습시퀀스(III)]: 높게, 낮게: 제임스 크뤼쓰의 시 “작고 노란 전철”, 시의 어떤 행과 소리모양이 어울리나? 꿇기는 음과 울리는 음으로 된 노래, 낮은,中间的의, 높은 음으로 된 음악, 선율선 손으로 표시, 요한 파헬벨의 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캐논: 벨라 바르톱의 “전원에서의 어느 저녁”, 주제선율악보와 주제 오선악보, 높은음자리표(G), 걸어가기와 뛰어가기음정, 사이렌소리와 외치는 소리를 뛰는 음정으로 부분작곡, 다양한 높이의 음들의 어울림: 3화음(f,a,c), 클러스터 (포도송이음)-화음의 특별한 종류, 소리모양. 이 영역의 학습활동은      의 활동과 연계되어있다.

⑤ 제6영역 - “음악을 어떻게 기보할까”(하늘색) [학습시퀀스(I)]: 음계, 음명 익히기, 노래곡에 나오는 음들을 음계로 정리, “내림나”음: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작은 밤의 음악” 중 미뉴엣, 올림바음과 제자리표, 게오르그 필립 텔레만의 교장칸타타 중 “체치데룬트 인 프로폰둠”, [학습시퀀스(II)]: 열심히 반을 위한 추가제공: 반음계, 간단한 선율짓기, 요셉 하이든의

“해오름” 중 “3중주, 노래곡-지도, (사썬는 단어들을 아낀다), (늘어진 고삐에 묶여), (판두르, 판두르 안다두리), (어제 아빠가 거기서 장을 보았네), (아비 농 다리 위), (가난한 청년의 노래), (젤린 알라이), (연주가). 이와 연계된 활동들은       이다.

⑥ 제7영역 - “음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초록색): 구조: (요셉 구겐모스의 시 “유리에서”; 그래프악보, (ABA), AA’BA’, 로베르트 슈만의 “즐거운 농부가 일터에서 돌아오듯”, 주제선율악보, 오선악보,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의 “수상음악” 중, 론도: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의 “우리안의 세상 여행” (문장에 있어서의 론도), 연주악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짜르트의 나장조 파곳 협주곡 중, (A부분 주제선율 오선악보), 론도 춤곡: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의 마장조 바이올린협주곡 중, 움직임의 진로방향들 (A부분의 주제선율 오선악보), 로베르트 슈만의 “과일만들기” (A,B,C 주제선율 오선악보), 열심한 반을 위해 추가제공: 벨라 바르토크의 “비웃는 노래”, 오선악보, 죄르지 리게티의 “모험”에 대하여. 이 영역은       의 활동들과 연계되어있다.

Ⅲ. 결론 및 제언

독일의 교과서와 관련된 발전사(發展史)를 회고하면 독일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가운데 하나인 “Musikunterricht Grundschule”는 1976년 이래 오늘날까지 교사와 학생들에게 꾸준히 활용되어 온 정평 있는 교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978년 독일 내 쉐레스비히-홀슈타인 주(州)가 (1978년에) 개편한 초등음악과 교육과정의 7가지 학습영역(1. 우리는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춘다. 2. 음악은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다. 3. 음악을 어떻게 만들까? 4. 우리들의 목소리는 악기. 5. 음향은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 6. 음악을 어떻게 기보할까? 7. 음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기초하여 새롭게 다듬어진 상기 교재는 모범적인 교재(모델)로서 크게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상기 교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를 따라 제의한 실질적

인 교육이념이 각 세부교재(교과서, 지도서 및 듣기자료)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통해 보다 잘 이해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 예컨대 그림기호 및 색띠의 활용과 같은 외적인 주의는 물론 각 활동영역의 수업목표를 최대한 성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체용 대안들의 제시에 다양한 구상을 시도함에 있어서 - 체계를 세우고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교육이념의 구현을 위해 시도된 교과서와 지도서 간의 연계적 공동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상기 교재의 특징을 좀더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도서의 특징으로서 [1] 1/2학년을 위해서는 제1~5영역이, 3/4학년을 위해서는 제2~7영역이 차별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로써 제1영역에서 1/2학년의 경우 교수지침과 참고자료 및 녹음자료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노래곡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발성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상기 영역이 제외된 3/4학년의 경우 노래, 악기연주, 신채표현 학습내용이 전(全) 영역에 걸쳐 그때마다 학습하도록 요구한다. 제6영역(음악기보), 제7영역(음악형식)은 1/2학년의 경우에 제시되지 않고, 더욱이 3/4학년의 경우에도 제6영역에서는 심화반을 위한 별도의 학습내용으로서 추가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학년 및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방식이 제안되고 있음을 엿보게 된다. [2] 교과서의 제재곡으로 전래곡, 외국곡, 15세기에서 21세기를 대표하는 많은 곡들이 다양하게 선정되었음에도 지도서는 각 제재곡마다 교수지침, 참고자료 및 녹음자료를 통해 빠짐없이 수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기본적으로 제시된 A1의 수업절차를 부분적으로 바꾼 A2, A3, A4의 선택가능한 수업안이 제시됨은 물론 나아가 그때마다 차별화된 D1, D2, D3 등의 수업안, 더 나아가 한층 심화된 E1, E2 등의 수업안과 같이 동일한 수업목표를 위해 다중적인 측면에서 수업방식을 고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특징이다. [4] 수행해야 할 과제의 해결, 학습과정의 연속성, 미리 계획했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학년에 걸쳐 다수의 학습영역을 2-3개 씩 학습시퀀스로 묶어 새롭게 구상한 점도 특별히 고무적인 수업방식으로 여겨진다. 이로써 각 영역별 학습내용의 연계성을 따라 일관된 교육이념이 단순반복이 아니라 나선형 형식의 심화된 반복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음악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한편 단점으로 여겨지는 것은 [5] 기술(記述)상 한 쪽 지면에 문장의 이단배치, 좁은 줄 간격, 9pt 정도의 글자크기로 편집된 지도서는 경제성을 고려했다고 보지만, 이를 의미 있게 활용해야 하는 교사에게서 그 진가가 자칫 간과될 수도 있으리라는 안타까움일 것이다.

2. 교과서의 특징으로서 [1] 우선 목차의 왼쪽 테두리 부분과 교과서 전체 쪽의 머리말 부분에 차별적인 색띠로 영역구분을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부각시켰다. [2] 사용하게 될 악기의 그림과 제재곡 혹은 주제와 연결된 학습영역을 그때마다 표지해주는 간단한 그림기호가 각 지면의 바깥쪽 아래 부분에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재빨리 주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1/2학년의 가창곡은 해당 학년의 연령에 따른 소리음역을 고려하여 대부분 바장조, 사장조로 되어있고, 우리나라가 그림, 막대, 오선악보의 순으로 제시하며 악보읽기를 지도하는 것에 비해 상기 교과서는 간단히 오선악보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4] 저학년의 경우 악보의 독해능력보다 가사의 뜻을 이해하고 즐거워하게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모든 노래곡마다 해당되는 가사를 전부(최대 18절까지) 게재하고 있다. [5] 곡의 흐름이 비교적 짧고 즐거이의 이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따라 부르거나 외워 부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각 곡마다 기악반주, 전주, 간주, 후주를 위해 오스티나토와 보르둔 중심의 반주악보를 소개함은 물론 춤추는 동작이나 진로방향 또한 제시함으로써 통합적인 음악교육의 의미를 살리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더욱이 각 학습영역이 단독수행으로서가 아니라 노래하기, 악기연주하기, 듣기, 신체표현, 연극하기, 이론 그리고 수작업-활동과 항상 효과적으로 서로 연계되도록 제시하였다. [7] 학습과제의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나 시의 전문, 그림악보, 오선악보, 사진, 삽화들이 최대한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연구를 통해서 본 논문은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념이 바람직하고도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은 교재(교과서와 지도서 및 듣기자료)를 통해 학습목표와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상세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수지침과 수업방식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함을 재확인하면서 한층 교육이념의 실재적인 구현에

다가서는 단서와 신념을 확보하였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그 체계만은 국제간 비교를 통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미국과 유사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음악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는 학습내용과 그 체계적인 구성에 있어서 미국처럼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물론 교육과정의 내용과 체계가 유사하다고 하여 그 교재 역시 동일하게 꾸며져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럴 수도 없다. 그럼에도 지도서와 교과서를 직접 활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음악 수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개별적인 음악체험 과정이 교사와 학생 자신에게 보다 분명히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어느 국가의 모범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독일의 교육과정, 교과서 그리고 지도서 간의 상호 유기적인 - 일관되고 체계적인 - 연계성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미리 고려해 볼 만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원칙적으로 [1] 우리나라의 “즐거운 생활” 교과가 추구하는 예술통합 이념의 구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교재구상의 보다 구체적인 노력과 시도가 언제라도 계속되어야 함에 동의하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한다. 한편 [2] 학년별 학습내용 및 체계수립에 있어서 고정된 틀(형식)이 아니라 학습영역 및 내용들의 유연한 학습절차 및 상호 연계적인 활동을 통하여 보다 생생한 음악수업이 기대될 수 있다면, 언제나 현장교육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과 개방적인 사고(思考)를 통하여 교재구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지한다.

이 같은 원칙이 음악교재 구상에 있어 반영되기를 바란다. 초등학교 3학년 부터 6학년까지 단일한 교과서로 서로 다르지 않은 학습내용의 고정된 듯한 체계로부터 벗어나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쌓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앞서 나아가는 다른 모범적인 교재를 분석하고 음미하여 적용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자(교사, 연구진, 집필진, 심의위원진, 교육정책진)에게 교육이념의 실현보다 더 큰 목표는 없다. 그 일차적인 실현 수단으로서 교재의 개발은 바로 그런 점에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 교육자 모두의 협력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한 다각적인 연구와 검

토가 학술적으로는 물론 교육현장(학교수업제도)및 교육정책의 체제(지원 및 심의과정)에 있어 두루 재고되고 개선되길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교사용 지도서: Fischer, W., Hansen, E., Hansen, J. & Schulz, M. (1991). *Musikunterricht Grundschule (Lehrband)*, Mainz-London-Madrid-New York-Paris-Tokyo-Toronto: Schott Verlag.
- 음악교과서(1권): Fischer, W., Hansen, E., Hansen, J. & Schulz, M. (1991). *Musikunterricht Grundschule (Schulband I: 1-2. Schuljahr)*, Mainz-London-Madrid-New York-Paris-Tokyo: Schott Verlag.
- 음악교과서(2권): Fischer, W., Hansen, E., Hansen, J. & Schulz, M. (1991). *Musikunterricht Grundschule (Schulband II: 3-4. Schuljahr)*, Mainz-London-Madrid-New York-Paris-Tokyo: Schott Verlag.
- Abel-Struth, S. (1972), *Musikalischer Beginn in Kindergarten und Vorschule*, Bd 2 [Praktikum]; Kassel.
- Gieseler, W. (1986), Curriculum-Revision und Musikunterricht, In Hans-Christian Schmidt(hg.), *Geschichte der Musikpädagogik* (Bd.1: pp. 215-266), Kassel: Bärenreiter Verlag.
- Hofstetter, R. (1994), Schulbuch, In S. Helms, R. Schneider & R. Weber(Eds.), *Neues Lexikon der Musikpädagogik* [Sachteil: pp. 236-237], Kassel: Gustav Bosse Verlag.
- Hopf, H. (1978), Schulbuchkonzepte, In W. Gieseler(Ed.), *Kirtische Stichwörter zum Musikunterricht*, München(pp. 291-297): Wilhelm Fink Verlag .
- Marohl, B. (1986), Schulbuchkonzeptionen der Gegenwart, *Geschichte der Musikpädagogik*(Bd.1), Kassel(pp. 376-412): Bärenreiter Verlag.

Nolte, E. (1982), *Die neuen Curricula, Lehrpläne und Richtlinien für den Musikunterricht an den allgemeinbildenden Schul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West-Berlin*, In S. Abel-Struth(Ed.), *Musikpädagogik* (Bd. 16), Mainz-London-New York- Tokyo: Schott Verlag.

ABSTRACT

Analyse des aktuellen Schulbuchs bzw. Lehrbuchs “Musikunterricht Grundschule” in einem Land in DB.

- als ein Ansatz zum Sprunge unseres Musikunterrichtes
in Grundschule

Cho Suni

Dies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Analysieren des Schulbuchs bzw. Lehrbuchs “Musikunterricht Grundschule” in Schleswig-Holstein in Deutschland, damit wir hoffentlich mehr oder weniger prospektive Neukonzepte für unseren Musikunterricht in Grundschule in Griff nehmen. Das Schulbuch bzw. Lehrbuch sind nämlich dafür das beste pädagogische Mittel, gewünschte Erziehungsidee zum Vollzug zu bringen. Nach dem Resultat dieser Analyse erscheint sich großer Unterschied zwischen den oben genannten Büchern und den gleichartigen in Korea: Z.B. dazwischen nicht nur in bezug auf die Design und Inhaltsverzeichnisse, sondern vielmehr die Inhalte(besonders die verständliche Disposition der 7. Lernfelder: [1] Wir singen, spielen und tanzen, [2] Musik kann etwas erzählen [3] Wie man Musik macht [4] Unsere Stimme als Instrument [5] Klänge haben verschiedene Eigenschaften [6] Wie Musik notiert wird und [7] Wie Musik gemacht ist), Planungen, Materiellen, Unterrichtssequenz und Angebote zu alternativen(A1, A2, A3...), differenzierten(D1, D2, D3...)

und erweiterten Unterrichtsformen(E1, E2...) usw. Worum geht es in diesen Unterschieden? Woraus kommen sie? Wie läßt sich Erziehungsidee der Musikpädagogik verwirklichen? Wie sollte unser Musikunterricht in Grundschule realisiert werden etc. - Vermöchte uns diese Arbeit solche Überlegungen anzulassen, erreichte sie zweifellos Erfolg. Übrigens beschreibt sie über das Schulbuch bzw. Lehrbuch in Grundschule in Korea nicht, weil sie vor allem für Lehrer und Lehrerinnen steht, die jetzt und bald die Erziehungssituation in Korea vorgenommen lehren.